

광주 충장축제, 올해는 '추억의 노래'로 물들인다

전체 회의 열고 주요 운영 방향 논의
금남로·충장로서 10월 7~11일 개최
시민·관광객 공감 글로벌 명품축제로

제23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이하 충장축제)가 '추억의 노래'를 주제로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동구는 최근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 '2026년 제1차 추억의 충장축제 위원회 전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축제 개최 일정과 주요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을 비롯해 지난 충장축제 결과와 총감독 위촉 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올해 충장축제의 개최 시기와 함께 중

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동구는 앞서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총감독 등을 역임한 황운기 씨를 충장축제 총감독으로 위촉했으며, 이번 위원회 회의결과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충장축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회는 올해 충장축제를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주제 역시 추억 시리즈를 연례화한 '추억의 노래'로 확정해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충장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규 콘텐츠 발굴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 축제장 공간 재구성, 퍼레이드 주제 및 연출 고도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충장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제길 위원장은 "위원회들과 긴밀히 소통·협력하며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충장축제를 만들

어가겠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개최 일자를 확정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세계축제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제23회 충장축제를 글로벌 명품축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장축제는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명예 문화관광축제'에 4년 연속 선정됐다. 명예 문화관광축제는 10년 이상 지속 개최된 전국 우수축제 가운데 20개를 엄선해, 축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축제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재선정으로 동구는 축제 평가 및 빅데이터 분석과 축제 아카데미·컨퍼런스 운영, 국내외 홍보·마케팅, 축제 컨설팅과 전문인력 양성 등 문체부의 주요 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광주시 동구는 최근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 '2026년 제1차 추억의 충장축제 위원회 전제회의'를 열고 축제 개최 일정과 주요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 동구 제공〉



서구 마을합창단 '아름다운 선율'

광주시 서구는 지난 24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서구 마을 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18개 동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합창단이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시 서구 제공〉

서구, 강의 직접 설계 '재능공유 청년강사' 키운다

강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2월 12일까지 접수

광주시 서구는 청년들이 강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재능공유 청년강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능 있는 청년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의를 직접 설계하고, 이를 또래 청년과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취업·진로, IT·미디어, 문화예술, 금융·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유한 서구 청년(19세~39세)으로, 서구는 분야별 최대 3명, 총 10명의 청년강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강사는 상반기 동안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강의는 청년강사의 재능과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해 또래 청년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강의 기획 단계부터 운영, 참여자 의견 반영과 만족도 평가까지 전 과정에 청년강사가 직접 참여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12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전자우편(kmg12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일자리 청년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강의 운영 공간도 확대됐다.

청년강사는 '서구 청년센터 플러스'와 '일자리스 테이션 상무' 등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며, 서구는 강사비와 재료비를 지원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회를 돋고 사회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청년강사를 선발해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 다양한 청년정책과 연계해 지속적인 활동 기회도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12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전자우편(kmg12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일자리 청년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재능공유 청년강사 사업은 청년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기획자이자 강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돋는 프로그램"이라며 "재능을 가진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양림문화센터' 전시공간 무료로 이용하세요

남구, 지역 작가·단체에 대여

광주시 남구가 지역 작가와 단체에 '양림문화센터' 전시공간을 무료로 대여한다.

28일 남구는 작품 전시 공간이 필요한 지역 작가와 단체를 대상으로 양림문화센터 전시실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전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11일까지다.

전시 장소는 남구 양림동 양림오거리에 위치한 양림문화센터로,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가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전시공간 3곳이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이번 모집 대상은 제1전시실과 제3전시실이다. 선정된 작가·단체는 해당 공간을 활용해 전시회를 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평면·입체·복합·체험 프로그램 등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다. 남구 거주자이거나 남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개인·단체는 우대한다. 지역 주민과 협업한 전시 계획이 있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 참여를 유도하는 전시를 계획한 경우도 우선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된 작가·단체에는 전시공간 무료 대여와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 홍보용 현수막 제작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 서류는 양림문화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북구,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아동학대 의심 가정 선제적 지원

추진된다. 지원 대상자를 선별해 전문가 상담과 심리치료 등 부모 자녀 간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방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위기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양육 상황 점검' 서비스도 병행된다.

문인 북구장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용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속 지원 서비스'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학대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 의심 아동에게 의료비, 응급 보호 물품 등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부모와 사춘기 자녀 간 발생한 갈등이 학대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가정에는 '양육 코칭 사업'이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알로에